

데스크시각



송기동
예방부장·편집국 부국장

“두 손이 있을 땐 나만을 위했습니다./ 두 손을 잃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故) 김홍빈 대장이 지난 2009년, 1월 남극대륙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봉(해발 4892m) 원정 당시 쓴 ‘손’이라는 제목의 시다. 시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유독 울림을 주는 까닭은 그는 열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이기 때문이다.

원정대에 수색비용 청구한 국가

김 대장은 27살이던 1991년 5월 북미 알래스카에 자리한 데날리(해발 6194m·옛 이름 매킨리) 단풍 등반 중 사고로 동상을 입은 양손의 손가락 모두를 절단해야 했다. 그럼에도 극한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산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 그때 ‘사고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행복은 항상 나의 옆에 있다. 처음으로 혼자서 숙을 입고, 뺨지를 이용하여 양말을 신고, 대소변을 혼자 가리고, 문을 열었을 때, 열마나 기렸는지 혼자서 울었던 기억들이 잊고제처럼 생생하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도 꿈이 있고 희망의 전도사로서 내가 해야 할 귀중한 삶이 기다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다. 이제야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내뿜었던 유명한 말이 있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게 충성할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던 말이다. 시민들은 매우 인상 깊게 받아 들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매우 강하게 생각했고, 저런 검사라면 어떤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 의무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윤석열 검사는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었다. 단호하게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사들의 기강을 잡고 검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된 이후부터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배우려 한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93개국이며 이는 세계 2위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 개도 아니고 무려 세 개의 험난한 시절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 시대

기고



임채석
광주시교육청 교육협력관
행정학박사

약속은 신뢰다. 우리는 매일 매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어릴 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일상생활에서 신뢰는 모든 관계의 핵심 가치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약속을 실천하는 사회다.

약속은 실천이다. 보통 매년 신년 초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실천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고 내가 한 말에 책임감을 가질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해 약속을 한다. 신뢰를 쌓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믿음직한 행동을 보여줄 때 상대

‘희망의 산악인’ 김홍빈 정신 이어져야 한다

행복을 느낀 걸 보면 ‘삶은 저절할수록 아름답다.’

2021년 7월 18일 오후 4시 58분(현지시각). 김 대장은 브로드피크(해발 8047m) 정상에 올랐다.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이어, 마침내 히말라야 8000m급 14좌(座) 완등 기록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7대륙 최고봉 등정에 12년, 8000m급 14좌 완등에 9년 등 꼬박 20여년의 시간을 들였다. 장애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몰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하산 도중 해발 7900m에서 조난을 당했다.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기적’같은 그의 생환을 바랐다. 하지만 파키스탄 군 헬기를 이용한 수색활동에도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유족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수색중단을 요청했다. 그렇게 그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의 별’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2022년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에 소요된 비용 6800만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이 부담해야 한다는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은 물론 산악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정한 조치였다. 앞서 정부가 김 대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1심에서 김대장 수색비용 2500만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이 부담하고, 다른 대원 구조비용은 25%를 대원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했다. 지난 6월, 정부는 민사항소 재판부의 ‘구조비용의 60%를 정부가 부담하라’는 회화 제안마저 거절했다. 지난 13일 고(故) 김홍빈 대장 3주기를 맞았지만 정부와 광주시 산악연맹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국위선양 행위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혼·포장을 받으민 국

공무원들이여 국가의 총복으로 태어나십시오

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을 겪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발전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근면함, 학구열, 경쟁심, 땀리땀리 문화, 개성과 창의성, 한글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렴함과 공정함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영토나 경제력과 무관하게 정렴할수록 최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매우 정렴하다. 수상이 몇 만원의 식사를 접대 받았다고 책임지고 사임하고, 퇴근 이후에는 결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정렴함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도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었다. 그들의 GDP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렴한 국가이다. 그래서 역시 부국이다. 필자는 지방의원 임기 동안 해외연수를 혼자서 싱가포르를 선택해서 방문했다. 두들겨리는 영어를 하면서 싱가포르의 탐오 조사국을 언급했다. 우리의 공수처와 검사 고위직인데 이 조직 때문에 싱가포르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에 과거의 필리핀을 살펴보면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이었고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었다.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주었고 60년대에는 아시아의 부국이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도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 두 나

약속과 신뢰

방은 우리를 신뢰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약속은 실천함으로써 효과가 배가된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공약이란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 시기, 예산 확보 방법 등 구체적인 약속 목록을 개발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공약은 시민이 후보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다. 당선 이후에도 평가는 계속되고 공약 이행 여부로 시민은 선출직 공직자를 판단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약은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고 의무다.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 평가 분야인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3개 분야에서 2년 연속 종합 최우수등급 SA획득이다. 종합평가를 포함한 전 분야 모두 최우수 SA등급을 받은 것은 체계적인 공약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7월 현재 공약 이행률은 72.6%로 광주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정책 사업들이 힘차고 내실 있게 순환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 광주교육은 더 큰 변화와 혁신의 바다를 헤쳐 나가고 있다. 잘되고 성과를 내는 부분은 더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현장에 스며드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과

가가 사건·사고 수습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일명 ‘김홍빈법’)을 공동 발의했다.

오래 전 김 대장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본다. 망설임 없이 내민 그의 조막손을 잡고 약수를 할 때 당혹감을 느꼈다. 뚱뚱한 손가락에서 그의 강한 에너지가 전해져 왔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했다. 조막손은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퍼지 못하는 손’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김홍빈 기념관’ 조속 건립돼야

영국 산악인 조지 말로리(1886-1924)는 ‘왜 산에 오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산이 거기 있으니까’(Because it is there)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김 대장은 몸소 실천해 응답했다. 그는 ‘희망’을 오르는 산악인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었던 양지훈(경기도 장애인스키협회) 선수는 지난 2월 ‘제21회 전국 동계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알파인스키 회전 스탠딩(선수부) 부문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후, 김 대장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에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언론매체에 밝힌 바 있다.

김 대장은 생전에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를 꾸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으로 청소년과 장애인, 사회적약자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봉사활동을 통한 희망나눔을 실천했다. 장애를 이겨낸 불굴의 도전정신과 희망나눔은 ‘김홍빈 정신’의 핵심이다. 이처럼 ‘김홍빈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김홍빈 기념관’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민, 산악 산·후배들이 발벗고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이제라도 구상된 소송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서 예우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부패에 찌들어서 파탄이 난 나라들이다. 몇 명의 부자들이 권력과 경제를 독점해서 부를 축적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부자들의 뇌물에 중독되어서 정렴함과 공정함은 존재할 수 없었다.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제의 활력이 사라졌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독점 자본에 모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사업의 업두를 낼 수 없었다.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곧 닥쳐올 것 같은 우리의 미래로 느껴진다. 검사들이 특히 안타깝다. 박종철 고문을 세상에 알리게 했던 검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 것일까? 자존심과 충성으로 뚫뚫 뭉쳐졌던 해병대는 어떻게 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을까?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정렴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던 권익위의 명에는 땅에 떨어졌고 공정한 방송을 감시하던 방통위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기껏 경찰의 수사권들을 독립시켜 주었더니 경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60년대 자유당 정권 하수인의 망령에 씌워버렸다.

대한민국의 워든 ‘빨리빨리’ 문화라는 데, 말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말할 일일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른 소리를 하고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훌륭하고 감동적인 공무원들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총복으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의 약속, 교직원과의 약속, 학부모·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씀 없이 노력하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을 100% 완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고 진실한 열매가 맺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교육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다. 약속은 신뢰를 쌓는 핵심적인 요소다. 한 사회의 수준을 이 야기할 때 신뢰만큼 중요한 척도는 없다. 최근 교권 추락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등으로 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의 힘은 약속과 신뢰에서 시작된다.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데서 신뢰가 회복된다. 신뢰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조화와 균형을 통해 무너지지 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회가 선진화된 민주사회다.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나 자신과의 약속, 타인들과의 약속, 교육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상호신뢰를 키워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교육에 대한 약속이 무너지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교육은 힘들고 어렵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체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 교육은 기다릴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社說

광주전남 대졸자 미취업 심각...5명 중 1명꼴

광주·전남지역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 가운데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는 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이나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보다는, 취업을 유보하는 대신에 취업 전 상당 기간 쉬면서 삶을 설계하는 워라밸족이 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구직활동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대부분 가사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대졸자로서 취업을 안 했다가 보다는 취업을 못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사·도는 젊은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정규적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근절되지 않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꾸준한 단속에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주변 유해시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된 스물손 내 유해업소 수는 많지 않지만 성매매 업소가 초등학교 근처까지 진출할 정도로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 단속 결과를 보면 2020년 1건이던 것이 2022년 2건, 2023년 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광주에서 2건, 목포에서 1건이 적발됐다. 적발 업소의 대다수는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허가 업종이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문을 열 수 있어 정기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성매매 업소까지 버섯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최근 서구에서 적발된 업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빌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빌라 4개 호실을 빌려 유명 프

Advertisement for 'Uyangsan' (우양산) featuring a 'No Equal Drum' (無等鼓) slogan. The ad promotes a brand of 'Uyangsan' products, highlighting their quality and availability.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nd mentions that the products are made in Gwangju. The ad also features a small image of a drum and a person.

Advertisement for 'Gwangju Ilbo'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The a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fax numbers. It also mentions the newspaper's address and website. The ad features a small image of the newspaper's masthead.